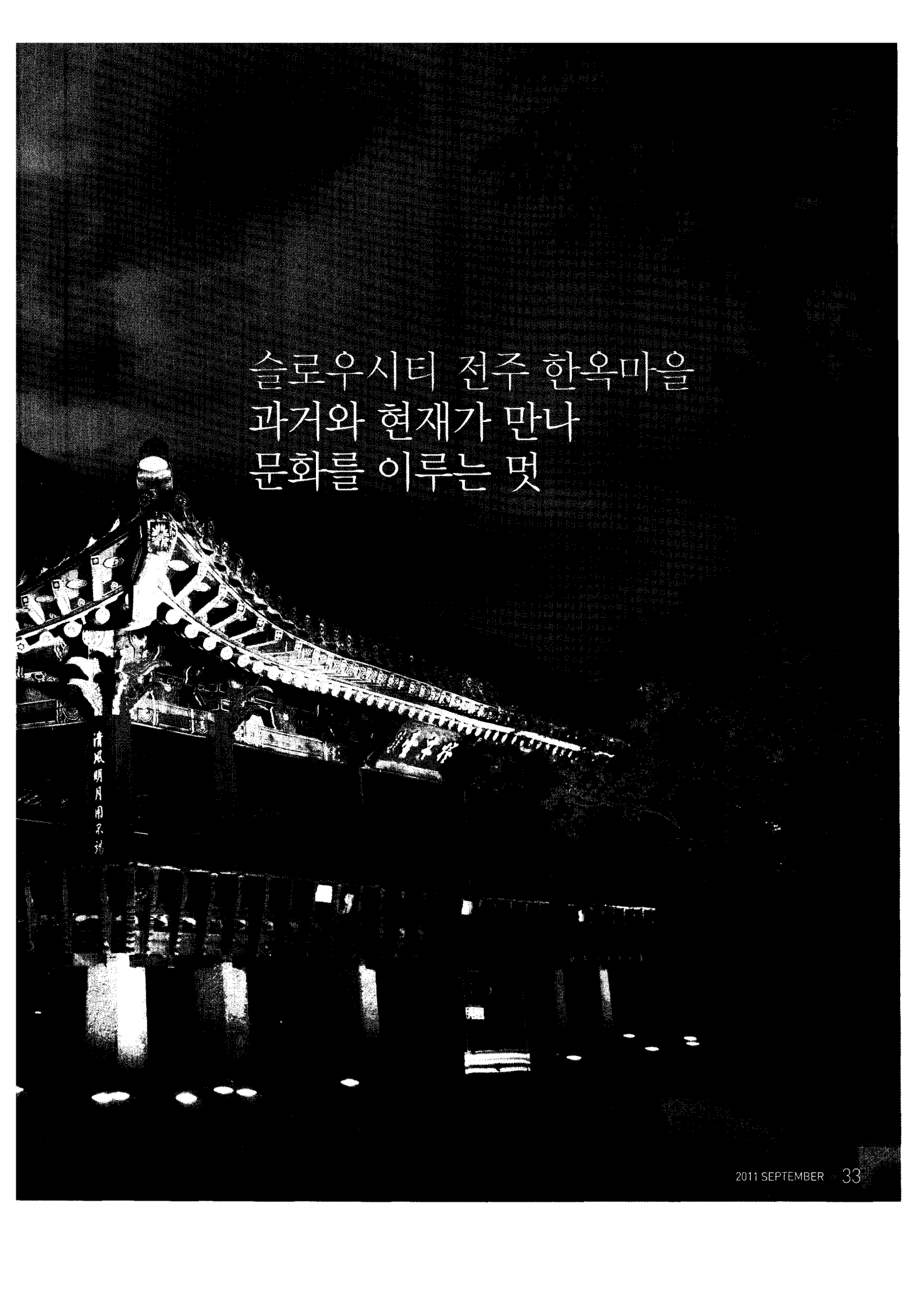


지혜 **깊어지는** 건강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글 이유미    사진 전주시경 제공





슬로우시티 전주 한옥마을  
과거와 현재가 만나  
문화를 이루는 멋

자연 속에서 그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며 느린 삶을 영위하는 도시, 슬로우시티.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슬로우시티로 공식지정 됐다. 한옥은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조선 시대 가옥을 그대로 보존, 관리한 것이니 한옥과 슬로우시티만큼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 마을에서 마을을 잇는 한옥의 정치

우리나라에서 한옥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을 주로 꼽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경주 양동마을, 영암 구림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의 멋은 무엇일까. 고풍스러운 멋이 남아 있는 도시 전주로 가보자.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꼭 가봐야 할 8대 ' 으뜸명소 ' 로 꼽혔을 만큼 역사와 맛, 문화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공존한다.

한옥마을의 출발은 1910년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오른다. 전주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중앙동 일대로 진출하고 상권을 차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이 만들어졌다. 한옥은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이어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마을과 조화를 이루며 전주만의 멋과 특색을 갖게 된 것이다.

한옥마을에 한옥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옥마을 옆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술 박물관이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통 술 막걸리 제조과정을 볼 수도 있다. 잘 익은 술맛까지 볼 수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그 외에도 한옥마을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한지와 풍물, 전통 혼례, 다도, 춤 등 다양한 테마를 담은 시설이 발길을 머물게 한다.

한옥마을은 큰길로만 간다면 3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마을이지만 정작 볼만한 곳은 골목골목 사이에 숨어 있다. 규모는 작지만 실핏줄처럼 연결된 골목길은 만나절을 잡고 느긋하게 걸어야 제맛을 만끽할 수 있다. 나

지막한 담장 너머로 장독대 등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들이 운치를 더한다. 해질 무렵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야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목대에 올라 한옥마을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은 꼭 거쳐야 할 필수코스니 잊지 말자.

### 1908년부터 자리를 지킨 전통성당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전통성당. 전통성당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영화 '약속'의 장면을 떠올리기 바란다. 영화 '약속'에서 남자주인공을 연기한 박신양이 경찰서로 지수하러 가기 전 전도연과 결혼식을 올리던 장소로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던 성당. 그 성당이 바로 전통성당이다.

이 전통성당은 전주에 있는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한다. 비잔틴 양식의 아름답고 웅장한 꼭대기가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다. 전통성당은 1908년 프와넬 신부의 설계로 건물이 완공되었다.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터는 천주교 사상 최초 순교자였던 윤지충의 순교지다. 때문에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는 성지다. 건축 당시 국내 기술이 미약해 청나라에서 도공을 불러 공사를 진행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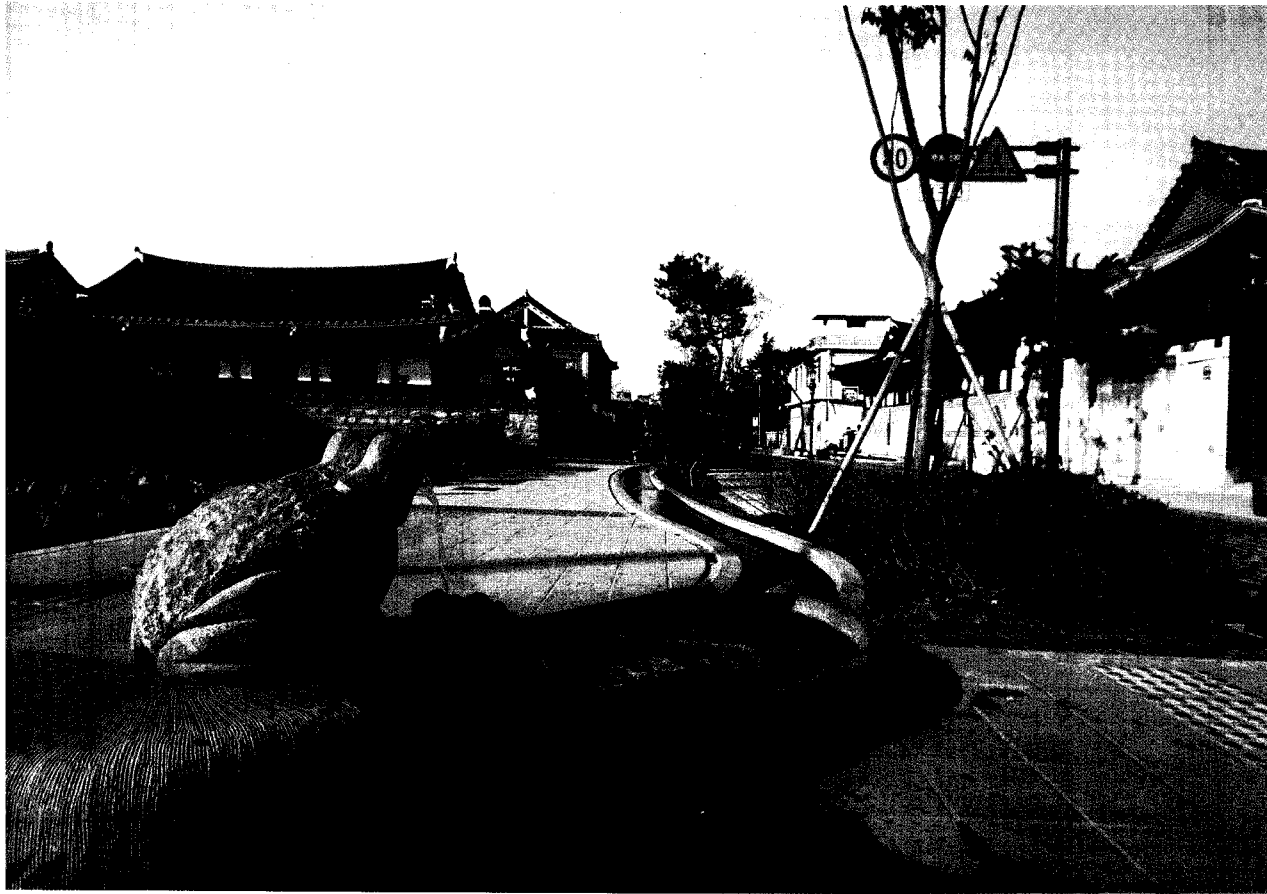
한편, 1980년에 전통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근거지로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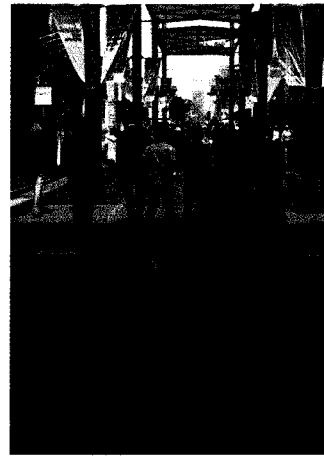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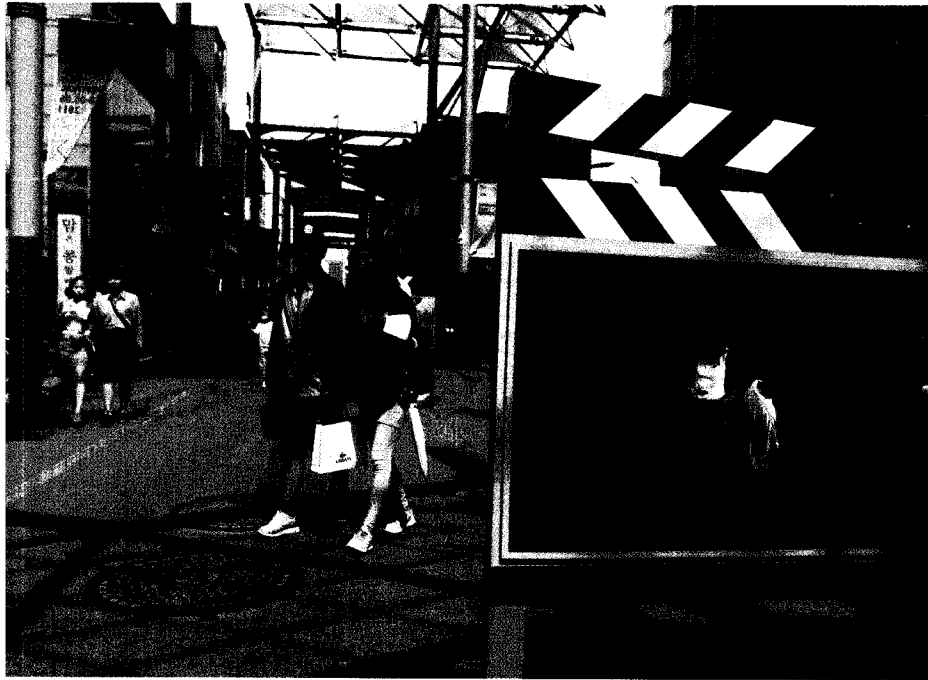
### 영화를 사랑하는 거리, 영화가 찾는 거리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하면 '전주비빔밥'이 떠오르듯 전주와 함께 생각나는 또 하나는 바로 영화다. 어느덧 12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진행되는 5월이면 전주에 영화팬들로 북적인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그간 전주 시민들에게 영화에

1.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들이 운치를 더한다.
2. 한옥마을은 큰길로만 간다면 3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마을이지만 정작 볼만한 곳은 골목골목 사이에 숨어 있다.
3. 전주 한벽투에서 보는 풍경은 으뜸이다.
4.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전통성당.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꼭 가봐야 할 8대 ' 으뜸명소'  
 로 꼽혔을 만큼 역사와 맛,  
 문화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공존한다.





어느덧 12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진행되는 5월이면 전주에 영화팬들로 북적인다.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독특하게 해냈다. 전주시도 영화 촬영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덕분에 영화인들 사이에서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전주시에서 영화촬영 및 제작을 지원한 영화는 모두 343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중 전주권역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에는 '타짜', '마더', '쌍화점', '국가대표', '전우치' 등이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의 거리', '영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 상권을 살렸다.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언급한 것처럼 전주의 대표음식은 단연 비빔밥. 비빔밥은 전주와 진주, 해주가 유명한데 전주 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 시대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늦쇠 대접에 담긴 흰밥과 그 위에 그림처럼 올려진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황백지단을 한데 비벼 먹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얼큰한 맛으로 전주비빔밥과 함

께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애주가들은 어김없이 아침 해장 음식으로 콩나물국밥을 찾는다. 콩나물국밥과 함께 곁들여 마시는 모주는 막걸리와 한약재, 흑설탕을 넣고 끓여 텃텃하면서 달콤한 맛을 낸다. 전주에 갔다면 꼭 맛보고 돌아오길 바란다. **MEDI**CHECK

### 전주 한옥마을 체험하기



한옥생활체험관(063-287-6300) 조선 양반 집을 연상케 한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안마당, 사랑마당을 너르게 갖춘 이곳은 2인 기준 조식이 제공되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실(7만 원)부터 전통 구들과 거실을 갖춘 13만 원짜리 특실(선비방)까지 다섯 가

지 객실이 갖춰져 있다. 동락원(063-287-2040) 자전거 무료 대여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조식 포함 2인 숙박료가 9~13만 원, 양사재(063-287-2040)는 옛 향교로 2인 기준 5~6만 원 대.